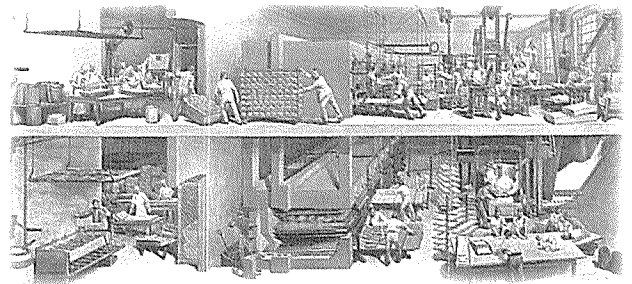


## 빵을 통해 본 6천년의 인류문명 《빵의 역사》 기술서와는 다른 시각 접근 ... 제빵종사자 자긍심 고취

하인리히 에두아르트 야콥 지음 / 도서출판 우물이 있는 집 펴냄 / 607p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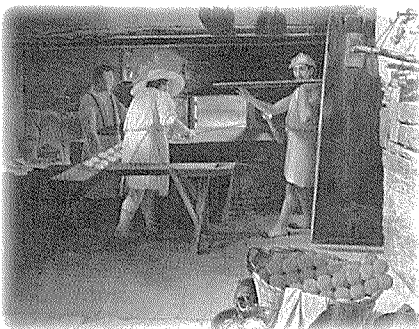
이 책은 기원전 4천년에서부터 현대까지 빵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빵에 관련된 책 중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도서로 알려져 있다. 이미 영문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전문가들도 꽤 있을 정도로 관계자들에게는 소장가치로서도 충분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빵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구하다. 기원전 4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단일 품목의 역사가 지니는 웅혼한 스케일과 역사의 상징 앞에 독자들은 우선 중압감을 느낄 정도다. 빵이 이 정도의 장구한 기원을 자랑한다는 것은 인류사의 흐름과 맞먹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제과제빵인들이 이 책을 읽는 순간, 업종과 직업에 대해 남다른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은 단순한 '빵의 역사'를 기록했다기보다는 '빵이 인류문명에 끼친 결정적 영향에 관한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빵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류문명의 흥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방대한 자료를 통해 증명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리스 빵의 신인 데메테르를 물리치고 예수가 최고의 빵의 신의 지위에 오름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프랑스 혁명은 귀족과 왕의 무분별한 빵의 낭비로 인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린 민중의 반역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한 직접적인 원인은 극심한 식량 부족 때문이었고,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망한 직후 전승국들이 독일 민중의 빵 문제를 해결해주었다면 나치에 의한 세계 2차대전의 발발은 막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빵의 역사는 정치사, 과학사, 경제사, 문화사, 전쟁사의 근본이 된다고 적고 있으며, 인류의 문명은 곧 농경문명과 동일하고 농경문명의 역사는 곧 빵의 역사라고 말한다. 인류가 제 아무리 문명화되더라도 음식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대지라는 것이다. 빵을 제공하는 대지에 대한 인간의 반역은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이 책을 쓴 하인리히 E. 야콥은 예술과 과학분야의 지식을 고루 갖춘 20세기의 대표적인 르네상스적 지식인으로,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강제수용소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기도 했다. 인공적인 기아의 조작으로 인종말살을 꾀한 히틀러의 학정을 강제수용소에서 경험한 야콥은 미국시민권을 얻어 출감한 후 4천권이 넘는 책을 자료로 20년 간 집필하여 이 책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만만치 않은 분량이지만 일반인이 읽기에 그리 어렵지 않다. 책은 마치 문학작품을 보는 듯 묘사가 생생하고 긴장감이 넘쳐서 손에서 떼기 힘들 정도로 대단히 매력적이다.

● 문의 : 도서출판 우물이 있는 집 (02) 718-0004